

“ 건설업계 윤리경영 확산 본격 시동 ” 주택 분양 실적 전월대비 22% 증가

건협, ‘제1회 건설업윤리경영대상 시상식’ 개최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한 업체에 윤리경영대상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GS건설(주) 김시민 부사장, 원광건설(주) 조성재 대표이사,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주)도원이엔씨 성우중 대표이사 등.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지난 2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제1회 건설업윤리경영대상 시상식’ 시상식에서 GS건설(주)(대표 허명수)이 대기업부문 대상을, 원광건설(주)(대표 조성재)이 중견 기업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하였으며, (주)도원이엔씨(대표 성우중)가 장려상을 받았다.

건설협회 이승남 감사실장은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하고자 이상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등으로 심사위원

회를 구성해 시상 및 평가 기준을 정하였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윤리경영 여건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각 부문별 대상을 선정하였다.

GS건설(주)은 내부고발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원광건설(주)은 윤리 현장 및 규범의 완비 등 경영자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주)도원이엔씨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에 대한 내실 있는 윤리경영 교육이 높게 평가되었다.

최삼규 회장은 “윤리경영대상이 건설업의 부조리를 정화하고업계의 자발적인 투명경영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년 5월 주택 공급동향 발표

2011년 5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2,679호, 수도권 13,114호이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6,439호, 아파트 외 16,240호, 주체별로는 공공 948호, 민간 31,731호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지난 5월 주택공급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로는 전국 28%, 수도권 38% 각각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 4월 착공실적(경기고양, 부산 기장, 경남 김해 등)이 높아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

되었다.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1,125호, 수도권 8,580호이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3,532호, 아파트 외 7,593호, 주체별로는 공공 7,647호, 민간 13,478호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전국 1% 증가, 수도권은 42% 감소하였다.

다만, 지방의 경우 전북 군산, 경남 양산 등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 준공으로 전월에 비해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35,340호, 수도권 12,448호이며, 주택유형별로는 분양 22,972호, 임대 6,457호, 조합 5,911호사업주체별로는 공공 11,870호, 민간 23,470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국의 경우 전월 대비 22%, 최근 5년 평균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부산해운대, 충남 연기군(세종시) 등에서 대규모 단지가 분양됨에 따라 전월대비 105%, 최근 5년 동월대비 123% 각각 증가하였다.

“가정이 화목하니 회사도 발전”

현대건설, 매달 두 차례 ‘가정의 날’ 정해 가족사랑 실천

‘오랜만에 식구들과 외식도 하고 남편과 단둘이 오붓하게 영화도 보고 행복한 하루였다.’ (플랜트사업본부 직원) / ‘가정의 날을 시행한 다음날 업무효율이 향상된 것 같다.’ (연구개발본부 직원) / ‘가족과 모처럼만에 식사와 대화를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시간을 되찾는 뜻깊은 하루였다.’ 현대건설이 임직원의 복지후생 향상과 가족사랑 실천을 위해 6월부터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일원이 된 현대건설이 그룹사의 가족사랑 실천에 동승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건설 임직원은 가정의 날엔 야근, 특근 등을 자제하는 대신 근무 시간내 업무 집중도를 높여 일을 처리하고, 오후 5시30분 정시에 퇴근함으로써 여유시간을 확보, 가족과 함께하며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가정의 날 시행과 함께 임직원들이 그룹사 문화공연에 매사이트를 통해 공연별 10~60% 할인된 가격에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일(수) 처음으로 가정의 날을 보낸 임직원 다수가 후기를 통해 ‘격주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한 번씩 가정의 날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힐 만큼 가정의 날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은 최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조사 발표한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건설부문 1위에 선정돼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건설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현대건설은 기업문화, 기업의비전, 인재관리, 전반적 매력 등 4가지 요소 모두에서 고른 득점을 얻어 이 같은 영예를 안았다.

일본 건설업기술센터 연구원, 한국건설감리협회와 간담회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박민규)는 지난 6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일본 (재)건설업기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건설감리제도와 감리원의 경력관리시스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일본 건설업기술센터의 이사장인 미타니 히토시와 3명의 연구원들이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감리제도 관련 법령 체계, 위탁업무 관련 사항(자격, 등록 관리, 행정처분 등) 등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관계자는 인적자원에 관한 기술자DB를 활용하는데 있어 많

은 실적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을 방문하여 좋은 정보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일본 기술자 DB 관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건설업기술센터(CE재단)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감리원 자격증의 교부를 통해 공사 현장의 기술자를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써,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1988년 6월 1일 설립한 재단이다.

그린홈 시범단지(공동주택) 아이디어 공모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강남 세곡보금자리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그린홈 시범단지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응모자는 시범단지 설계, 에너지 절감기술, 고효율 기가재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범단지에 적용할 아이디어는 물론 일반적으로 그린홈에 적용 가능

한 아이디어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대상 1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최우수상 이하)을 수여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홈 시범단지는 에너지 저(低)소비형 친환경 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신기술의 Test-Bed 역할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5층이하의 아파트 3~4개동, 200여세대 규모로 조

성되며 고단열 창호, 하이브리드 환기 등 Passive 기법과 고효율 설비 등 Active 기법,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에너지 절감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에너지소비량을 기존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60%이상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저층 주택의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그린홈 건설사례는 많으나, 고층 주택은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일반적인 고층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린홈 모

델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그린홈 기술의 적용 및 성능검증을 통한 기술향상과 검증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한편, 그린홈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주택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적인 홍보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된 디자인, 기술, 공법 등은 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토해양부는 그린홈 시범단지가 조성되면 그린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린홈 보급이 활성화되고 관련 기술 등이 가속화되어 그린홈 기술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EAM 2013 총회 서울 개최 최종 확정

국제기술사의 참여 확대 기반 조성

한국기술사회(한영성 회장)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김영길 원장)은 오는 2013년 6월에 개최하는 “IEAM 2013 총회”를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대만 타이베이 Howard Plaza Hotel에서 개최된 IEAM 2011 총회에는 24개국 132명의 대표단이 참가해 기술인력 교류 촉진과 공학 교육 인증에 관한 논의했다. 한국기술사회 대표로 한영성 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대표로는 김성조 수석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IEAM 2013 개최지는 서울에

서 한국기술사회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공동개최하는 최종안을 확정했다. 기간은 2013년 6월 17일부터 21일(예정), 장소는 서울 프레스센터로 예정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남아공,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20여 개국에서 2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양기관은 2013년 IEA 총회 공동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지난 2010.10.26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EA는 기술인력교류를 촉진하는 3개 협의체와 공학교육을 인증하는 3개의 협의체로 이루어져 있다.

기술사 상호인정 등 기술인력교류를 촉진하는 협의체는 APEC·EMF·ETMF가 있다.

기구의 설립목적은 공학교육의 질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데서 출발해 STEM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1989년부터 이를 강화하는 노력을 국가간 합의로 추진해 오고 있다. 기술사법 제5조의2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기술사자격 발급 권한은 본 기구의 감사를 받아 승인 됨. 한국은 본 2011년 IEAM 총회에서 2010년 감사의 통과를 승인받아 향후 6년간 위 자격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다.

하이패스 이용률 50% 넘어섰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환경 사랑을 생각하며
절약 생활에 앞서는
하이패스 고객님
고맙습니다

녹색 더 하기 **hi-pass** 한국도로공사

환/경/사/랑